

후배가 선배에게

선배님께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둔 출판디자인과 학생입니다. 입학할 때만 해도 출판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졌었습니다. 단순히 표지디자인 정도 하는 것이겠거니 했었는데, 3학기째 되니 이제야 조금씩 출판의 의미를 알 것도 같습니다. 저는 책을 '우리의 생각과 사상, 시대의 흐름, 조상의 지혜를 담은 유산'으로 봅니다. 이제 저에게 출판은 그 민족의 혼과 얼이 담긴 과거사를 포함한 현대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담은 보물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요? 출판에 대하여 미미하나마 지식을 갖게 되니 그 깊이에 따라 책의 가치도 달라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팍한 기술로는 커버할 수 없는 기획과 창의성이 수반되어야 출판이 발전한다는 사실도 이제야 어렴풋이 알 듯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배워가며 이제 출판을 조금씩 알아가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으려 하는 제 귀에 들리는 출판업계의 소식은 어둡고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나라 전체가 다 어려우니 출판업계도 별 수 있겠느냐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출판계의 어려움을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입학한 지 얼마되지 않아 종로서적이 부도났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원인이야 알 수가 없었지만 그곳을 즐겨 찾던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뒤이어 들리는 소식 역시 씩씩했습니다. 그것은 도매상 연쇄부도로 출판유통체계가 완전 마비되었고 약 700여 개의 출판사가 문을 닫았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신입사원은 물론 경력사원도 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또한 서점들의 할인 판매 열풍으로 인해 책값의 전체적인 상승과 베스트셀러 사재기 조작, 가볍게 읽고 넘길 수 있는 상업성 짙은 책들의 잇따른 출간과 성공, 다양성을 검비한 책들의 부재 등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우울한 소식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더군

다나 해외시장 개방으로 무분별하게 도입될 해외도서 에 대한 무방비한 대처태도는 출판계로 진출하려는 저희로 하여금 학업에 열중할 수도,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도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언론 매체의 노력으로 책에 대한 관심과 호응도가 높아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각 주요 일간지에 책에 관한 기사가 매주 소개되고, 라디오·텔레비전 할 것 없이 책을 읽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잠시 잠깐의 거품열기에 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학기에 출판사를 견학하고 견학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과제를 받았습니. 난생 처음으로 출판사를 견학하게 되었는데, 함께 갔던 친구들도 모두 적잖이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나라 대부분의 출판사 규모가 그렇게 작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유통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아 영업사원은 매일 출장을 다녀야 하고, 팔리지 않는 책들을 모아놓은 창고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트럭 한 대당 5,000원을 들여 도서를 폐기처분한다는 얘기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어떤 것이 현실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진정한 의미의 출판을 과연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획과 창의력이 중요한 '출판'이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어떤 노력들을 해야할까요? 이제 3개월 후면 졸업입니다. 우리 출판계가 제 졸업을 반가워하고 있을까요? 수 년을 먼저 경험해 보신 선배님께서 만약 지금 저희와 같은 입장에 계시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 하시겠습니까? 진심어리고 정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2003년 9월 계원조형예술대학 출판디자인과 유경아 드림